

제6회 강연은 본교의 사학과 한계화(韓桂華) 학과장님이십니다. 강연 주제는 '아시아 공동체 : 거시적으로 역사와 문화의 정수 찾기 —11세기와 12세기 두 가지의 국제 맹약을 중심으로'입니다. 한 학과장님의 강연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현대 21세기에는 비즈니스와 무역이 성장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의 사용 역시 광범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들이 국경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연맹의 체결과 발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서유럽(EU) 및 북미 지역에는 협력 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었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에도 협력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아시아지역에서도 동남아, 동아시아, 남부 아시아의 공동 경제 조직을 결성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동아시아 공동체', 심지어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이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인도,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한 발상이었습니다. 아시아 공동체는 지역적 연맹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문화적 공동체입니다. 지역권 내의 다국적, 다민족적, 다문화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는 모든 공동체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만약 아시아공동체라는 원대한 목표와 이상이 실현된다면 그야말로 지역의 행운이자 인류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경제적 협상, 협력이라는 기본 전제 외에 더 중요한 것은 내적 문화의 탐색입니다. 전 지역의 보편성을 가진 문화와 공감된 가치관이 있어야 공동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며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세기에서 12세기 중국사에서 송나라는 북방 적국인 요(遼)와 금(金)을 '澶淵之盟'과 '紹興和議'을 체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연맹 체결 전후의 양국 관계와 정세 발전을 분석하고, 전쟁으로부터 장기간의 평화를 유지하게 된 이유와 그 영향을 분석할 겁니다. 우선 결과적으로는 연맹이란 '예의, 믿음, 평화, 번영'의 가치를 내외부적으로 동시에 충족할 때 아름다운 비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조망할 때 아시아 공동체의 다원적 문화와 종교는 공동체 형성의 장애물이 아니라 조력입니다. 지역 문화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정수를 추출하면 인류 본질의 선(善)을 나타내면서 지역의 안정과 번영뿐만 아니라 소위 유토피아라 일컬어지는 대동세계(大同世界)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학과장님의 전공은 송나라의 역사와 경제사로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있던 이 두 개의 '평화 조약'에 대하여 통찰력 있고 독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송나라는 군사력이 가장 약한 시대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호시탐탐하던 시대에 약소국이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국제외교를 통해 강대국들과 서로 침략하지 않는 협약을 체결하여 윈윈의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설사 그 당시에는 국권을 모욕한 불평등조약일지라도 거시적 역사의 관점에서 볼때 수백년의 평화를 얻고 전쟁으로부터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10세기에서 12세기 송나라는 북쪽 적국 요(遼)와 금(金)을 대상으로 '澶淵之盟'과 '紹興和議'을 체결한 것이 좋은 사례가 됩니다.

그 당시나 후세에서나 두 개의 '평화 조약'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澶淵之盟’의 대한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澶淵之盟’을 체결 후 송과 요는 120여년의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경제적, 문화적 등 다방면의 교류가 끊이지 않아 양국이 모두 경제와 문화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에 금의 세력이 세지면서 송나라(북송)와 손잡고 요나라를 멸망시켰으나 송나라도 결국 금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금은 적국의 적인 송나라와 함께 요를 멸망시키고, 틈새를 노려 송나라까지 멸망시켰습니다. 잘 알려진 이른바 ‘靖康之難(정강의 난)’이 바로 이때 발생한 것입니다. 북송이 멸망한 후 康王 趙構가 應天府(河南商丘)에 南宋을 세워 宋高宗이 되었습니다. 금은 고종을 멸하기 위해 다시 남쪽에 침입하였습니다. 고종은 금에게 쫓겨 양쯔강 남쪽까지 피신하다가 바다까지 도망갔습니다. 끝에 금이 해전에 약한 관계로 간신히 반쪽 강산을 지켜냈고 ‘紹興和議’를 맺었습니다. ‘紹興和議’는 두 번의 내용 상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송이 금의 신하가 되는 것이기에 실제 송이 멸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협약을 ‘易君臣之稱，為叔姪之國，宋主稱金主為叔父，兩國文書，改表詔為國書’로 변경, 곧 송이 금의 부속국으로부터 풀려나 나라와 나라의 대등한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紹興和議’는 비록 불평등조약이었지만 이 조약으로 양국이 평화를 얻어 경제적, 문화적인 교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몽골의 세력 확장으로 남송이 이전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몽골과 연합하여 금을 멸망시켰지만 결국 남송 자신도 몽골에게 멸망되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두 개의 평화 조약의 공통점은 평화의 시간을 얻어서 경제적, 문화적 교류와 발전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문화 교류를 통해 이질적인 두 문화(몽골 유목 문화와 중원 漢문화)가 서로 융합되어 문화변용(accultration)이 됩니다. 요컨대 북쪽 민족의 漢化와 한족의 몽골화가 실례입니다. 상부에서 언급 했듯 송나라가 군사면에서는 약한 국가이었지만 문화면에서는 강국이었습니다. 문학이나 예술은 물론이고 전 중국을 통틀어 대단히 번영한 편에 속하기에 요와 금이 모두 漢化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금의 경우, 여러 황제가 어렸을 때부터 漢化 교육을 받았으며 집권 때도 적극적으로 한화 정책을 폈습니다. 금의 漢化는 남송과 대치하며 스스로를 중국의 ‘정통’이라고 생각했기에 북조라고 자칭하지는 않을 심산이었습니다. ‘居天下之正統’의 사상은 전통적으로 한인 정권 전환의 핵심 사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은 ‘청출어람’으로 송나라를 부속국의 위치에 넣고 자신이 전통이라 자칭한 것입니다(출처 한 학과장님의 수업 PPT). 이를 통해 금의 漢化는 표상적인 복식 등을 넘어서 사상까지 변화시키는 문화교류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 학과장님이 결론에서 언급한 듯이 ‘맹약 상 왕에서 (서로가)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풍속 등 다방면의 교류가 지속되었습니다’, ‘맹약의 체결 자체가 공평이나 불공평이냐는 평가들이 있겠지만 맹약의 체결로 인해 장기간의 사회적 안정과 해당 지역의 평화는 당시 그리고 후대 모두의 일관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환경에서만 경제와 문화의 원만한 교류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문화의 교류와 발전의 토대에서야만 비로소 평화가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역할은 ‘거울’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거시적으로 역사와 문화의 정수 찾기’는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할 때 공동의 식 형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의 강연으로 ‘언어적 장벽 초월’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

습니다. 반면 오늘 한 학과장님의 강연을 통해서는 '문화적 장벽'을 초월하려거든 문화의 교류와 융합을 통하여 함께 인정하는 문화적 기초를 만들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장벽'을 허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연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